선언에서 실천으로 협력을 이어가기

부산 선언은 공동의 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와 지식 공유, 협력을 위한 출발점이 되고자 합니다. 선언 채택 이후 대한민국은 선언의 정신이 세계유산 체계 내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후속 협력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언의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및 관련 협력기관과 함께 세계유산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 대화와 역량강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협력은 관련 기관 및 협력 주체와 함께 포럼, 정책 대화, 워크숍, 지침 자료 개발, 교육·훈련 및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선언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주요 방향을 제시합니다.

Follow-up area & Indicative initiatives

정책 대화 및 지식 공유

정례 정책 포럼과 정책 검토 추진
새롭게 부상하는 쟁점과 우수사례, 향후 발전 방향 공유

포용적 해석과 상호이해

포용적이고 증거에 기반하며 OUV에 부합하는 해석과 전승을 위한 지침 개발, 워크숍 및 역량강화 추진

역량강화와 공동 책임

남아시아, 아프리카 및 군소도서개발도상국(SIDS)을 포함한 지원이 필요한 국가 및 지역 대상 지역별 연수, 동료 학습 및 협력 추진

기후 회복력과 지속가능발전

기후행동, 재난 위험 대비, 위험 평가 및 유산 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침과 도구 개발, 연구 및 교육·훈련 추진

디지털 책임과 미래 세대로의 전승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록화, 디지털 복원, 데이터 구축 및 윤리 기반 정책 대화를 포함하여 책임 있는 디지털 유산 실천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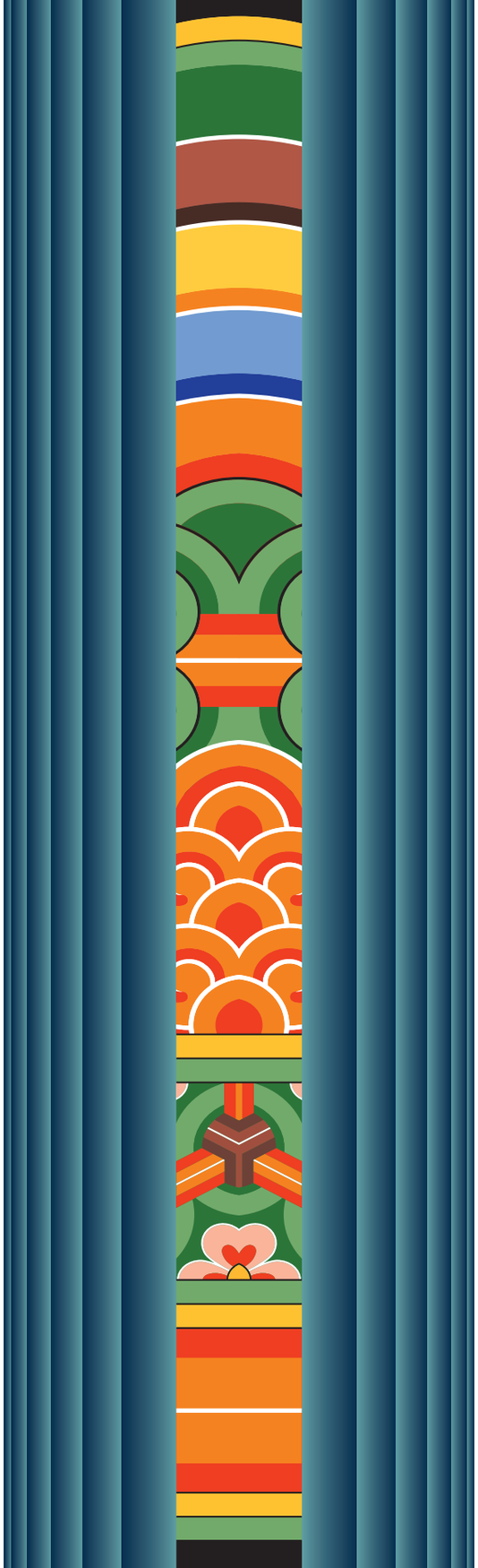
공유된 유산과 국제협력

상호이해와 평화 증진을 위해 공동의 유산에 관한 협력, 초국가적 지식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국가유산청
Korea Heritage Service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산 선언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

대한민국 부산
2026년 7월 19일-29일

복합위기 시대,
국경과 분야를 넘는 협력

BUSAN, REPUBLIC OF KOREA
19–29 JULY 2026

BUSAN, RÉPUBLIQUE DE
CORÉE 19–29 JUILLET 2026

부산,
대한민국

2026
7.19–29

부산에서 함께 여는 세계유산의 미래
복합적이고 상호연결된 도전의 시대, 세계유산을 위한 공동의 방향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부산 선언은 세계유산 공동체에 하나의 질문을 제시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세계유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해하며, 미래세대에 전승해 나가야 할까요?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유산은 국제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틀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협약 당사국과 전문가, 공동체와 기관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지켜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무력분쟁과 재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사회적 요인과 개발로 인한 압력,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유산과 관련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맞물리며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 선언은 앞으로 세계유산 협력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합니다. 국내외 전문가,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자문기구 및 협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선언은 세계유산협약의 기본 취지와 핵심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세계유산 체계 전반에서 보다 일관되고 포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합니다.

부산 선언이 하나로 잇는 핵심 과제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장소와 경관, 그리고 그곳에 축적된 역사와 기억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전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이 마주한 여러 과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부산 선언은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의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사람과 기관, 지식이 경계를 넘어 함께할 때
세계유산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협력을 통한 협약 이행 강화**
  국가와 기관 및 여러 거버넌스 층위 간 협력을 통해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이 보다 신뢰성 있고 일관되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책임 있고 포용적인 유산 해석**
  참여적이고 증거에 기반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다양한 관련 관점을 반영하는 유산의 해석, 설명 및 전승을 지원합니다.
- **책임 있는 관리와 공동 책임의 공유**
  세계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있어 당사국, 유산 관리자, 공동체, 원주민, 지식 보유자, 전문가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수행하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인정합니다.
- **유산·자연·기후 회복력의 연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생물다양성, 기후행동, 재난 대비 및 지속가능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을 발전시킵니다.
- **디지털 책임의 강화**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정확하고 포용적이며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되도록 하면서, 관련 권리와 지식 및 미래세대로의 전승을 함께 보호합니다.

부산 선언의 중심에는 협력(Collaboration)이 있습니다.

보존은 가치를 지키고,
신뢰성은 세계유산 체계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하며,
역량강화는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소통은 이해를 넓히며,
공동체는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이어 갑니다.
협력은 이 모든 노력을 하나로 잇습니다.